

[최연소 로스쿨 합격기]

## R=VD 그리고 새로운 도전

- 1992년 2월 생
- 창원초등학교 졸업(2004년)
- 고입검정고시 합격(2006년 5월)
- 대입검정고시 합격(2006년 9월)
- 인제대학교 법학과 졸업예정(2011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2011년)



이 미 나

### I. 들어가며

어느새 법학전문대학원 3회 적성시험, 서류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학교 등록까지 입학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약 한 달 전쯤 2차 합격발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고 싱글벙글 웃음이 멈추질 않았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것이, 열심히 달려온 과정들을 빛나게 해준 결과여서 그런 듯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아가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돌이켜보면 다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기 로스쿨 진학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돌아가도록, 준비 과정에서 덜 헤멜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 II. 마음가짐

우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뿐 만 아니라, 진로 선택을 하는데서 머뭇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내가 처해있는 현실, 그리고 권유가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간과할 수 없는 요소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인제대 법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법학을 하여 사회에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거창한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을 준비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원했던 것에 대해 도전도 하지 않고 도망치려 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멘토 교수님을 믿고 따라서 로스쿨입학에 도전하기로 2학년 2학기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도전정신이 지금의 합격을 가능케 해준 하나의 씨앗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진학은 결코 변호사만을 양성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법학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 각각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전문가도 될 수 있으며, 법학 전문가로서 공직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로스쿨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진정 로스쿨 진학이 자신의 꿈에 다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로스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로스쿨에 입학해서 법학중에서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은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하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R=VD라는 공식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R=VD는 Realization=Vivid Dream입니다. 즉 “간절히 생생하게 꿈꾼다면 그 꿈은 현실로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 공식을 ‘관계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에 저는 제가 목표로 한 로스쿨의 홈페이지를 메인 홈페이지로 등록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할 때마다 메인 홈페이지를 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빨리 입수할 수 있었고, 또 공부하는데 힘을 더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원하는 로스쿨에 입학에 더 가까워지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꿈을 설계하고 원하는 로스쿨을 찾아 사소한 것부터 하나 하나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 III. 로스쿨 준비과정

우선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1.리트 점수 2.학점 3.영어점수 4.논술 5.면접 6.봉사활동 및 기타경력을 필요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요소들을 대학교를 다니면서 법학과 그리고 인당리더스라는 복수전공을 통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진학 준비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학과 한상수 교수님의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인당리더스 학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인제대학의 리더양성을 목표로 하고, 지역인재 공무원시험, 전문대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3학년부터 리트와 관련된 과목을 학부수업으로 접했기 때문에 약 1년 반 동안 리트에 익숙해 졌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3학년

처음 인당리더스 학부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LEET를 준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읽기, 언어추론, 추리논증과 같은 과목과 논술 과목을 수강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수험생활을 한 것보다는 학부 수업을 공부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LEET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추리논증과 언어이해 기출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정말 난해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점수도 낮게 나와서 자신감이 떨어졌었지만 계속해서 LEET관련 과목을 수강하여 학부 수업과 LEET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인당리더스 학부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님께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받은 것이 구체적인 진로설정과 LEET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는 10명 이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력과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방향에는 인당리더스 과정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강의 LEET과목 강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평화봉사단에 정식으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온 봉사활동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 봉사활동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서류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 받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학부생이라 서류심사에 들어가는 서류의 경력란에 쓸 내용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의미로 자기계발 프

로그래프의 수료증들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성적관리 또한 꾸준히 하였습니다.

## 2. 4학년

인당리더스 학부 과목인 동·서고전선독, 법학추론, 언어추론 과목을 들으면서 LEET준비를 하였습니다. 동·서고전선독같은 과목은 LEET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리논증과 언어이해의 지문 내용은 정말 분야도 다양하고 형식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지문을 접하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동·서고전을 읽으면서 이해력을 높이고 전공이 아닌 다른 영역의 지문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 4학년 필수법학실습과정으로 법률구조법인 대안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에서 법률상담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1회성이 아닌 짧은 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은 스펙을 쌓기 위한 활동이 아닌 봉사활동의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률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와 실제적인 상담사례를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법률상담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에는 본격적인 수험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학교에 나가서 같이 로스쿨 진학 준비를 하던 3명과 함께 하루 14시간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영어점수를 늦게 준비해서 불안감에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영어점수획득을 가장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결국 리트시험이 2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LEET와 토익공부를 병행하게 되었는데 7월에 마지막 토익시험에서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동영상비로 학원의 동영상도 들었지만 크게 도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1주일에 1회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적응하고 시간안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8월 22일 LEET를 치르고 23일~27일 까지 인제대학교에서 교육역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아 4박 5일의 큐슈대학교 로스쿨 방문 목적으로 일본단기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학교 프로그램 일정이 시험을 치고 바로 다음날에 출발해야 해서 체력이 부담도 되었지만, 시험을 치르고 놀 생각을 하니 체력이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스트레스도 풀었는데, 일본에 있는 로스쿨을 방문하여서 한국 로스쿨 제도

와 비교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경험도 수료증을 받아 서류 심사  
에 적극 활용 하였으며, 공부만 하기 보다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실질  
적인 경험을 한 것이 제가 합격할 수 있게 해 준 핵심 요소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4학년 2학기에는 멘토 교수님 지도 아래에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였습  
니다. 오랜 시간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첨삭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면접 준비는 커뮤니케이션특강이라는 인당리더  
스 과목을 통해 하였습니다. 먼저 면접의 기본요소인 자세, 어투를 교정하였고 면  
접의 본질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토  
론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중간, 기말고사 시험으로 2번의 모의 면접을 실행하였습  
니다. 모의면접은 법학과 교수님 3명의 면접관 그리고 학생 1명으로 이루어지고  
형식 또한 원하는 로스쿨의 실제 시험과 가능한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  
의면접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실제적이고 솔직하  
게 공부해온 과정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과목별로 공부를 어떻게  
하였는지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IV. 로스쿨 준비과목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은 안정된 마음상태로 LEET공부에 입  
하기 위해서 가장먼저 영어점수를 획득하고 LEET준비를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먼저,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추리논증과 언어이해, 논술 그리고 면접의 기본 바탕  
은 제대로 된 독해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  
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지만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에 책을 많이 읽  
는 것이 로스쿨 준비과목 고득점과 직결되는 것임을 항상 염두해 두시기를 바랍니  
다. 이 파트는 로스쿨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의 공부 방법과 약간의 팁을 가미  
해서 서술하겠습니다.

##### 1. 영어

저는 영어점수획득을 늦게 준비 해서 수험생활을 하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  
습니다. 가장먼저 수험생들이 영어점수획득을 할 것을 바랍니다. 영어시험점수는  
토익/토플/토폴 3가지가 있는데 학교마다 반영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망하는 학교의 전형을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토익을 준비하였는  
데 토익점수를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단연 문제풀이를 하기 전 단어와 문법에 대한 공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1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에 1번 토익 모의고사를 치고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최고점을 얻었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녀서 단기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방법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2. 추리논증

추리논증은 처음 접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에 치러온 특정 지식에 관하여 테스트 하는 시험과는 달리 어떠한 논리법칙을 공부하고 체득하여 이를 적용시키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우리 학생에게 익숙하지 않고, 시험이 이제 3회밖에 치러지지 않아서 시험경향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추리논증을 공부해오면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학교강의도, 학원 강의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학습방법을 제시해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풀어주는 방법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리논증 고득점의 키는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논리학체계를 공부하고 체득하여 적용하는 이 3단계를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저는 논리학입문 책을 교과서로 보았고 논리학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논리학 공부를 확실히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리논증 공부의 핵심은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분석하고 반복해서 푸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집은 조호현의 추리논증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해보고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공책에 풀었던 공식이나 과정을 필기해 두었고, 나중에 반복해서 풀 때 풀이 방법과 비교해 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5문제를 시간 내에 정확히 푸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신 없는 파트 문제 5개를 먼저 제외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방법은 정확도를 높여주고 시간 내에 다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없애주어 시험에 안정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 3. 언어이해

언어이해는 수능 언어영역이 심화된 형태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저는 수능의 언어영역을 공부하지 않아서 사실 추리논증보다 언어이해를 공부하는 것

이 더 어려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정말 길고 다양한 영역의 지문을 소화하여 정확히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언어이해 점수를 높이려고 학교 수업도 들어보고 동영상 강의도 들어 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으로 공부도 해보았는데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추리논증의 교과서로 생각한 논리학과 같은 그런 원론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언어이해 문제집을 찾다가 수능 기본서인 언어의 기술이라는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언어이해의 교과서로 사용하였는데 정말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이해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았고 구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언어이해점수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문을 접하고 동서고전을 읽고 요점을 찾는 훈련하는 것이 언어이해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언어이해도 추리논증과 마찬가지로 기본을 닦은 뒤 LEET와 MEET/DEET기출문제를 이용하여 공부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법부분은 문항수가 작아서 비교적 적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저는 네오 어휘어법특강 책을 주로 통학시간에 버스에서 보았습니다. 짜투리 시간에 어법공부를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 4. 논술

논술 준비는 정확한 독해력, 논리력, 그리고 표현력을 요구합니다. 논술은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성 있는 문제를 선택해서 1주일에 한 번 토론수업을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직접 주제에 관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한편의 논술문을 써와서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들과 토론하고 서로 첨삭해주고 또, 다른 학생들이 쓴 논술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시야도 넓어지는 시너지 효과도 얻었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되도록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접해볼 수 있도록 스터디를 구성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논술은 자기가 직접 써보고 남들과 비교해보고 첨삭도 해보고 선생님들께 코멘트도 들어보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문제가 나오므로 지문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LEET논술문제와 비슷한 논술 문제를 찾아 풀어서 실전감각을 높였습니다.

#### 5. 자기소개서

사실 가장 쉽다고 느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저에게는 시험의 한 과

목처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밋밋하고 평범하다는 느낌이 들어 글로써 자기 PR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동기, 선배, 교수님들께 코멘트를 받고, 첨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많은 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하여 자기 자신을 PR하기는 힘이 듭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야기를 지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R=VD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꿈을 목표로 해온 것들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있었던 경험과 나의 모습에서 이와 관련된 모습들로 나의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요구합니다. 한편의 스토리로 구성된 나만의 자기소개서는 Vivid Dream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왔던 것들,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내가 그러한 꿈에 적합한 인재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현재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들과 로스쿨 진학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합격한다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법에 관하여 공부할 것인가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소개서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흥미를 가지고 눈여겨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자기소개서더라도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코멘트를 받을 것을 바랍니다.

## 6. 면접

면접 준비는 우선 기본적으로 면접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할 태도, 어투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체득하여야 합니다. 제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이라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로스쿨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관한 쟁점이 잘 정리 되어있는 면접대비 책과 매일 신문을 보는 것을 통해 시사성 있는 문제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토론을 하여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 앞에 섰을 때에 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사문제를 접해서 지식을 쌓아가자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세계관을 잘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이에 입각하여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의면접을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능한 지망하는 학교의 면접방식과 동일하게 면접을 해보고 나면 한층 실전에서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V. 마무리하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로스쿨 진학 준비를 결심하고 학부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정진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합격보다도 제가 꾸고 있는 꿈에 나아가기 위해 달려온 이 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합격은 이 과정들이 한층 더 빛날 수 있도록 빛을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할 압둘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만큼 또 제가 해야 하는 도전과 나아갈 과정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로스쿨 진학을 목로 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법학도로서 갖춰야 하는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또 자신이 나아가야 할 목표에 관련된 경험들을 하나 하나 축적하는 소중한 과정임을 항상 기억 속에 염두해 두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